

제주주보

사순 제2주일

2020. 03. 08. (가해) 제2204호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마태 17,2)



『그리스도의 변모』 1924년, 모자이크, 이스라엘 타볼산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성당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두 개의 열쇠

형곡본당 주임 |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우리는 회개와 참회의 시기인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와 참회의 시기에 우리는 절제하며,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분명히 힘든 것인데 교회는 이 시기를 “복되신 은총의 때”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참회라면 온통 회색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보다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참으로 복된 은총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고 하시며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회개와 신앙이라는 열쇠입니다. 회개와 참회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인 회개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하느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기에 회개와 참회를 하는 사람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사람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열쇠가 생겨납니다. 이렇듯 사순 시기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만드는 시기이기에 어찌 “복되신 은총의 때”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고 하느님의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거룩한 변모를 목격하기 전에 먼저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당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왜 예수님은 수난과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며, 제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수난과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순 시기에 회개와 참회의 삶을 사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느님은(제1독서) 오늘 우리에게 죄와 욕망의 삶에서 벗어나 자비와 사랑, 참회와 용서가 있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기에 오직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2티모 1,8)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와 참회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수난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이를 두 개의 열쇠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순 시기는 침울한 회색빛 바위가 아니라 찬란한 하느님 나라를 품고 있는 보석함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와 참회의 삶을 통해 보석함을 열 두 개의 열쇠를 준비합시다. **골로 3,12**

나비와의 특별한 만남과 자연 사랑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한명세 모세

자연 사랑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동물들과 생태계의 수호자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님인 태양의 찬가’에서 자연과의 일치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이나시오 영성도 역시 자연과 더불어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생태 영성에 그 뿌리를 둔다고 하죠. 나 같은 평범한 신자도 나비 같은 피조물과 그런 교감이 가능할까? 스스로 묻자 맘속으로 대번 이런 말이 튀어나왔죠. “허 참 바보 같은!”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서 선입견을 깨고 벌떡 일어나 자연으로 나아갔더니, 생똥맞은 제 행동을 비웃음인지 나비는 보란 듯이 훨씬 더 멀리 달아나더군요.

그 후로 어느 ‘침묵 피정’에 참가했었는데, 며칠간 말없이 산길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저 아래 호수에 비친 하늘과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며 호수 위의 모든 형상이 삼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수도, 마음도 그 물결을 잠재워야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또렷이 비치며,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음은 마음의 상태에도 적용되는 이치. 우리 마음을 맑고 잠잠케 하는데 유익한 자연은 우리를 하느님 사랑으로 이끄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었죠. 자연에서 곤충을 접하는 기회가 많던 저는 늘 나비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다 보니 이젠 나비가 제 몸에 다가와 직접 맞닿으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이나 어깨, 무릎 등에 나비가 직접 내려앉는 만남이 한 해에 백 번을 훨씬 넘고, 때로는 멸종 위기종 ‘붉은점모시나비’도 그렇게 만났죠. 하지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아니라, 나비 맘에 따라 자유롭게 오가는 만큼, 달아날 때가 많더라도 어련히 그러려니 하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나비와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나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도가 되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런데 빛을 따르는 나비는 아름답지만, 어둠을 따르는 나방은 학술적으로 같은 부류인 나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도 어둠이 있어서 빛이 잘 드러나듯 못난 나방도 주님 안에서는 아마 그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비와 가까워지는 기술이나 비결이 궁금하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무슨 특별한 신비체험을 위해 애쓰거나 고도의 정신집중 같은 것과는 다를 듯해요. 굳이 말하자면, 바보처럼 싱겁게 빙그레 웃는 마음? 또는 단순히 진실로 기도하듯이 함께하기? 혹은 상대를 존중하며 모든 것 내려놓고 맨손으로 친근하게 다가서기? 아무튼 나비와 자연은 우리 본래의 맑음과 질서의 회복에 유익하지만, 너무 열심히 일정에 충실한 활동은 덜 중요할지도 모르죠. 오히려 게으름피우듯 느긋하게 머물며 선�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갖는 쉼을 통해 놀랍고 신선한 감동 또는 위로나 치유도 선사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미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한 예절이지만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는 독서와 강론과 보편 지향 기도로 이루어지고, 성찬의 전례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 축성의 감사 기도, 영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46항 참조)

말씀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미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앙 공동체가 안식일에 거룩히 지내던 예배의 형태가 미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주일에 복음 말씀을 들었고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모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며 사제나 부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신자들은 주일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경과 친숙해지고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게 키워 나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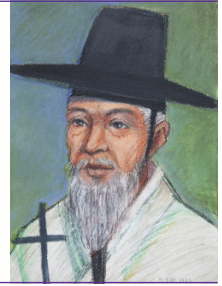


말씀 전례에 이어서 성찬 전례가 계속됩니다. 성찬 전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행하던 파스카 예식을 새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고 명하신 그 뜻을 그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파스카에서는 어린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최후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어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미사는 참회 예식과 말씀의 전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데 대한 감사 기도와 영성체로 이어지고, 강복과 함께 각자 삶의 자리로 파견하는 마침 예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박경화 바오로 (1757~1827년)



‘도향’라는 관명(冠名)으로도 잘 알려진 박경화(朴甫祿) 바오로는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33세 무렵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본래 그는 제법 재산이 있는 데다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몸이었다고 한다. 1839년 대구에서 순교한 박사의 안드레아가 바로 그의 아들이다.

바오로는 입교한 지 얼마 후에 일어난 박해로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의 배교는 오히려 열심을 배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바오로는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을 열심히 읽고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는 데 노력하였으며,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열심히 덕행을 닦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었다.

60세가 지나서 바오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충청도 단양의 가마기라는 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이곳에서 그는 1827년의 정해박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시 경상도 상주의 명에목으로 이주하였으나 4월 그믐에 교우들과 함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다가 체포되었다.

상주로 끌려가는 동안 박경화 바오로는 기쁨에 넘쳐 “우리가 오늘 가는 길에 대해 천주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고, 다른 교우들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형벌을 받는 동안에도 그는 “내 육신은 관장에게 맡기지만, 영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소리쳤다. 게다가 옥중에서는 늙은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보다 먼저 교우들을 격려하거나 보살펴 주었다.

상주 관장은 도저히 바오로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대구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대구 감사는 바오로에게 혹형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자, 사형을 선고한 뒤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바오로는 새로 감사가 부임한 뒤 다시 옥에서 끌려 나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령에 다 여러 차례의 형벌로 인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에 그는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아들과 교우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하였다.

“이 옥을 복락소(福樂所)로 생각하시오. 밖에 있는 가족들로 인해 분심을 갖지 말고 내 뒤를 따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요.”

그런 다음 바오로는 평온한 기색으로 자신의 영혼을 천주께 드렸으니, 그때가 1827년 11월 15일(음력 9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였다. 그가 순교한 뒤 5개월 후 교우들이 그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 발굴하였는데, 그때까지도 그의 모습이 평소같이 평온해 보였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창세 12,1-4ㄱ	제 2 독 서	2티모 1,8ㄴ-10	복 음	마태 17,1-9
화 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 성 체 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미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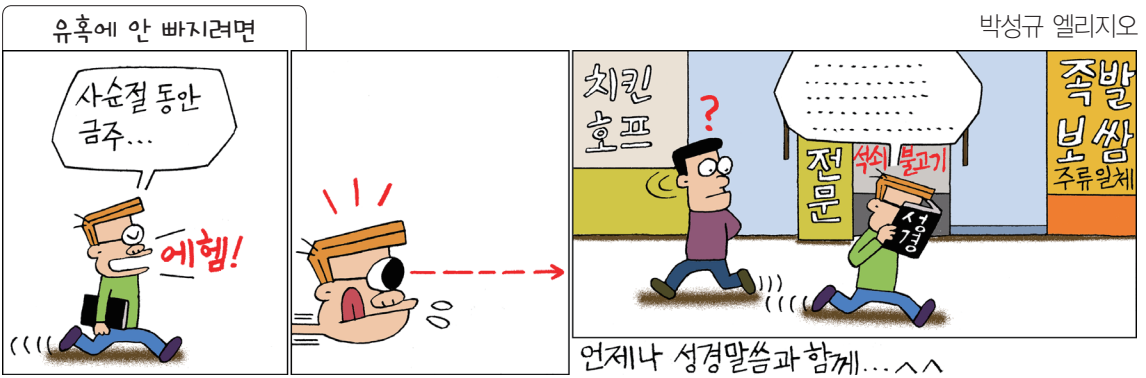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신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사'가 중단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방송미사나 대송(예를 들어, 그날의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바침)과 선행 등으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해 주십시오. **교구는 특별히 교구 총대리 주교님이 집전하는 3월 8일 사순 제2주일 미사**에 신자들이 '대구대교구 유튜브'와 '가톨릭신문 유튜브' 그리고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함께하기를 권합니다.

- 1) 유튜브(영상) : 천주교대구대교구, 가톨릭신문 유튜브
- 2) 라디오(음성) : 대구가톨릭평화방송(93.1Mhz): 주일 05:00~06:00, 18:05~19:00,
천주교대구대교구 앱, CPBC앱에서도 청취 가능

2.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는 성사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현존을 모시기 위해 '영적 영성체'(spiritual communion: 트리엔트공의회,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제8장; DS 1648항 참조)하기를 권합니다. 방송미사나 대송중에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의 '영적 영성체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고 머무시기를' 간절히 청하십시오. (기도문은 교구 홈페이지 가톨릭생활 - 기도문 또는 교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도문 - 특수지향 참조)

코로나19!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기수(야고보) 몬시뇰
1996년 3월 12일

성소 | 피정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피정

일정: 1일, 1박 2일

대상: 어르신 성경대학, 사목임원
및 제단체 부부, 가족

문의: (054)652-0591 / (010)2785-0591

교육 | 모집

청년국 음악팀 노엘 단원 모집

찬양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분야: 키보드,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음향, 영상 편집, 프로그램 기획

문의: 교구 청년국, (010)2574-8770

2020년 1학기 신학성경 수강생 모집

성사론, 신론, 윤리신학, 성경입문,
공관사도, 모세오경, 그리스어,
바오로서간, 가톨릭서간 등

개강: 4.6(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79차 ME주말: 3.27(금) 19:00~29(일)

380차 ME주말: 4.24(금) 19:00~26(일)

장소: 한티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기도 모임

일시: 3.28(토) 9:30~18:00

장소: 성베네딕도회예관수도원 마오로관

지도: 허성준 신부(성베네딕도회)

준비물: 성경 / 회비: 2만원

문의: (010)8599-3127

학산셋별학교 교육생 모집

모집: 2.3(월)~3.31(화) 4월 입학

내용: 검정고시 시험대비 교육지원

대상: 중·고등 검정고시 학력취득 희망자

신청: 전화 및 내방접수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제31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4.20(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한국SOS어린이마을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영문 자료 번역

문의: 984-6928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

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태극권,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

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신청: 254-6115

청년썬별 성경공부 모집

개강: 3.17 매주 화 19:3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대상: 40세 미만 미혼 남녀

주제: 청년썬별, 예수를 만나다.

문의: 성안나 수녀, (010)4085-2646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 신·구약 (수) 10:00, 19:30

심화: 성문서 (월) 10:00, 19:30

(일반 과정 이수자)

문의: (010)3311-2672 / (010)8243-0195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3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대상: 15~30세 남자 / (02)828-3600

채용 | 안내

2020 사순 음악 피정(피에타)

일시: 3.17(화) 20:00(저녁미사 후)

장소: 본리성당

출연: 베리마스 남성중창단

문의: 526-8333

제1회 교구장기 파크골프대회

일시: 5.4(월), 9:00 개회

장소: 대구 강변파크골프구장

마감: 4.1(수) 17:00

문의: 파크골프동호회, (010)7743-5996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봉단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예력)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2대 반세기, 건강관 관철,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6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자·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선 우(마리아)

♥ 교통족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장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용역 2번출구 (동행방향 20m)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 건강 전문 병원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비즈니스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우미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 2. 26)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통단지 45 전자관 1층 239호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재일병원 옆
김 경 임 (아 네 스)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 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복현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 (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 의·의학박사 | 최희만(예우), 어서우(D.안드레아)
북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